

한국어 파생접사의 확대 의미 연구*

—의미 유사성을 가진 접두사를 중심으로—

이 양 혜

Abstract

Lee, Yang-hye. 2004. 11. A study on extended meaning of derivational affixes in Korean-Focusing on derivational prefixes that have meaning-similarities. *Korean Linguistics* 267~296. This study examines how extended meanings of certain affixes, which are created by the change of their original and archetypal meanings, affect the relations between prefixes in terms of meaning. The findings include 1)the same meanings among prefixes which did not have any relations are created by the extension of their meanings, and replace another prefix onto the same root; 2)There are cases where prefixes that have the same meanings fade their shared meanings by the extension of their meanings; 3)There are cases where the meanings of prefixes have not overlapped yet even if there are meaning-similarities among prefixes by the meaning-extension.

주제어: prefix(접두사), 원의미(original-meaning), 원형 의미(archetypal meaning), 확대 의미(extended meaning), 의미 유사성(meaning-similarities)

1. 들어가기

언어 변화 중 내용으로서 의미 변화는 그 요인이 언어 자체에 있기 보다 언어의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변화에 있다. 그렇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 -075-A00059).

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 변화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 화자들이 언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 변화이다. 언어의 의미에 인지가 작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따라 다르다. 문화와 역사에 따라 인지는 달라지며, 또한 이러한 인지에 따라 언어는 다각도의 변화 방향과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글은 파생접사의 의미가 변화하는 주 요인이 언어 자체에 있기 보다는 사람들의 인지에 의한 것이라 보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인지 언어학적 관점이, 언어들을 개별적·고립적 존재로 보기보다 관계 속에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관계란 동일성, 유사성, 근접성 혹은 다른 관계들을 모두 포함한다.

연구 목적은 일차적으로 파생접두사의 의미 변화로 인한 확대 의미를 살피고, 둘째, 이러한 의미 확대가 파생접두사 사이의 의미 유사성이나 의미 근접성 또는 의미 불일치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밝히기로 한다. 접두사의 의미 확대는 접두사의 의미 추상화와 관련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것이 언어 사용자의 인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연구 기반은 기존의 전통주의 시대나 구조주의 시대의 분석적 태도, 생성주의적 시대의 규칙 설정과 어휘부 설정 등의 관점과는 다르다.

김계곤(1969), 서병국(1975), 김규선(1971)에서는 접두사의 타당성이나 설정 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옥익환(1984), 김순임(1987) 등은 접두사의 분류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존의 접미파생어 연구와 마찬가지로 규칙이나 구조, 의미 밝히기에 국한되어 있다. 안종애(1983), 정동환(1984, 1993), 안효경(1994), 고영진(1997), 김덕신(1997) 등에 이르러 접두사의 의미 변화와 발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논의가 일차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정동환(1993: 157-204)의 논의 목적은 개별 접두사의 종류와 의미

유형 나열이기 때문에 접두사의 의미 변화 논의는 여기와 결합하면서 주변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안효경(1994) 역시 접두사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지만 논의의 부수적인 예로서 대치 가능한 접두사와 함께 언급하고 있을 뿐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없다. 이에 한 단계 발전하여 접두사의 의미 양상과 의미 변화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안종애(1983)인데, 실사의 접두사화에 따른 의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두사의 의미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문법화로 연결시킨 것이 김덕신(1997)의 논의이다. 이들 연구는 실사의 허사화에 따른 의미 변화를 살피고 있을 뿐, 접두사 자체의 의미 확대나 다의성,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접두사 분석이나 어휘부 설정에 따른 접두사의 종류나 결합 관계와 양상을 바탕으로 한 논의에서 한 단계 발전된 연구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 와서 접두사의 의미 변화에 관한 관심은 인지 언어학의 영향으로 접두사에 인지 언어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연구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권오희(1999), 이양혜(2003)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권오희(1999)는 접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추상성과 동일 어휘 부재로 잡아 이를 접두사의 원형 형태로 삼고, 이에 대한 근접성에 따라 접두사의 원형성의 정도성을 밝혔다. 이양혜(2003)은 유추가 규칙의 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변화의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파생접두사의 의미 변화에 사용된 유추는 대상의 특징이나 속성, 그리고 이미지와, 새롭게 형성하려는 언어 개념사이의 공통성과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유추의 적용은 접두사의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의미 변화는 접두사로의 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침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접두사를 대상으로 인지 언어학적 접근 방법을 시도한 것에 의의가 주어지는 데, 전자는 접두사의 원형 형태를 설정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주어졌

다면, 후자는 의미 변화에 인지가 관여하게 되었다는 데 초점이 주어진다. 본 연구 역시 인지 언어학적 방법의 한 시도로 인간의 인지 변화에 따라 접두사의 의미 변화 즉 의미 확대가 일어남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의미 확대 방향은 접두사의 추상화에 해당되며, 이로 말미암아 다른 접두사와의 의미 유사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파생접미사는 그 의미가 추상적인 경우가 많은 데 비해 파생접두사는 파생접미사보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이다. 의미 동일성과 의미 유사성은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명확하게 규명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구 범위는 파생접두사에 한정한다.

2. 파생접두사의 의미 확대

접두사는 명사파생 접두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동사파생, 형용사파생 접두사 순이다.¹⁾ 이 중 단어 생산성이 일희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그 뜻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는 것도 많다. 한편 접두사는 기능상 의존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의미 또한 자립적인 범주의 단어처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단지 어기와의 관련성에 의해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경우가 또한 많다.

이 장에서는 파생어의 품사별로 의미 변화에 따른 접두사의 확대 의미를 밝히면서 접두사 사이의 의미 동일성이나 의미 유사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파생접두사의 공통 의미 영역과 의미 확대 유형이 밝혀지게 된다.

1) 품사별 파생접두사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사실 정확한 파생접두사 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 필자의 조사와 김정은(1995: 51)과 안효경(1994: 19-21)의 총 147개의 접두사 목록을 참고로 한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두사의 종류가 많지 않은 만큼, 의미적 유사성이 나타나는 접두사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파생접두사에 나타나는 의미 유사성이나 의미 동일성은 접두사의 다의적인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데, 이는 단어가 가지는 다의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어의 다의미는 구체적인 여러 의미의 집합이라면 접두사의 그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르다. 추상적인 것은 해석의 범위가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만큼, 그 사회 언어 화자들의 필요에 의해 의미 범위 또한 넓어질 수 있다.

2.1 동사와 형용사 파생접두사의 의미

동사나 형용사 파생에 참여하는 접두사는 한 가지 품사 파생에만 참여하는 접두사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품사 파생에 참여하는 접두사도 있다. 하지만 모두 합쳐도 그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동사파생 접두사는 많은 종류의 접두사가 비슷한 뜻을 보여주며, 형용사파생 접두사는 종류 자체가 많지 않고 뜻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²⁾

용언파생 접두사 중 동사파생 접두사는 ‘들-, 들어-, 처-, 휘-’와 ‘데-, 설-’, ‘빚-, 엇-, 헛-’이 비슷한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용사파생 접두사는 ‘검-, 드-, 데-, 휘-’가 이러한 의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³⁾

2) 형용사파생 접두사 ‘새-, 셋-, 사-, 싯-’는 어감 차이가 날 뿐 의미 차이가 없어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로 보아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의미 관련성이란 어휘들의 동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의 관계 등의 모든 관련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의미 동일성이나 의미 유사성을 포괄하는 말로 사용하게 된다.

(1) ‘들-: 들어-: 처-: 휘-’의 뜻과 파생어⁴⁾

‘들-’ :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 들까부르다, 들피다, 들부수다,

‘들어-’ : ‘몹시’, ‘마구’, ‘갑자기’ 들어갈기다, 들어닥치다, 들어대다, 들어박다, 들어몰다, 들어부수다,

‘처-’ : ‘마구’, ‘많이’ 처걸다, 처넣다, 처담다, 처대다, 처박다, 처지르다,

‘휘-’ :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 휘갈기다, 휘감다, 휘날리다, 휘몰다, 휘지르다,

(1)에 제시된 접두사에는 ‘마구’라는 공통 의미가 들어있다.⁵⁾ 그러나 이들 의미 차이점은 ‘들-’에 ‘상하향성’이고, ‘들어-’에 ‘내향성’, ‘처-’에 ‘누적성’, ‘휘-’에 ‘회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의미 특징은 이들 접두 형태소 자체가 가진 의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 형태소의 원의미와 관계있다.⁷⁾ ‘들-’은 동사 ‘들다’

4) 빗금 친 단어는 접두사들이 동일 어기에 결합한 파생어를 뜻하는데, 이들 파생어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논의 내용에서 밝히게 된다.

5) 안효경(1994: 75)에서는 접두사 ‘내-’에도 ‘마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내갈기다’와 ‘들어갈기다’에서 동일 어기 결합을 보여주는 것은 ‘내-’에 외향성이, ‘들어-’에 내향성의 상반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내-’에 ‘마구’라는 뜻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접두사 ‘휘-’는 형용사 형성에도 쓰이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파생형용사에서 다루기로 한다.

7) 논의를 위해 전제하여야 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지면 관계상 간단히 제시하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원의미와 원형 의미를 구분하기로 한다. 이견환(1998: 91)에서는 ‘원초적’의 의미를 언어학적 술어로 ‘원형’ 의미라고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원초적 의미는 원의미(original-meaning)로, 전형성을 띠며 의미의 핵심을 이루는 의미를 원형 의미(archetypal meaning)로 보기로 한다. 그런데 원의미는 원형 의미와 일치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개념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 행위에 대한 인지적 경험의 결과를 포괄하는 종합적 의미로 본다. 왜냐하면 개별 언어 의미 구조는 한 언어권 내에서 관습화된 개념 구조이기 때문이다(김종도, 2002: 34 참조). 따라서 의미 변화가 형

에서, ‘들이-’는 ‘들이다’에서, ‘처-’는 ‘치다’에서, ‘휘-’는 ‘휘다’에서 문법화를 거친 형태소들이다. 접두사는 원래 있었던 문법 범주가 아니라, 대부분 문법화를 거친 언어 요소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범주라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1)의 접두사들에도 이전 단계의 범주였을 때의 의미가 여전히 다소 남아있기는 하지만,⁹⁾ 자립형태소일 때의 원의미가 많이 희박해졌고, ‘마구’라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파생접두사의 의미 자체가 ‘마구’라면 이들은 동일 어기를 대상으로 대치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에서 보면 이들 접두사가 동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만 대치 결합력이 없다. ‘들-’과 ‘들이-’는 동일 어기를 대상으로 하여 파생되는 단어조차 없다. 동일 어기를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 파생어인 ‘들이대다’와 ‘처대다’, ‘들이박다’와 ‘처박다’, ‘처지르다’와 ‘휘지르다’의 의미도 동일하지 않다. 또 ‘들이몰다’와 ‘휘몰다’는 의미가 비슷한 듯 하나, 실제 문장에서는 이들이 대치되어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들 의미는 다르다. 이는 ‘마구’가 실제 이들 접두사의 구체적 의미가 아니며, 또한 이들 접두사 사이의 의미도 같지 않다는 근거가 된다.

(1)의 접두사에 공통적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이들 개별 접두사들의 의미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의미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구

태소나 단어의 개념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결국 현재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 의미는 원의미와 확대된 의미들의 종합적 관념이다. 주변 의미는 원형 의미에서 떨어진 의미를 뜻한다.

- 8) 유창돈(1975: 105), 권오희(1999: 9) 등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접두사는 대부분 실사에서 허사화 되었다고 보며, 대체로 언어 요소끼리 결합하면서 그 의미와 형태, 기능이 변하게 되었다고 본다.
- 9) Givón(1973)에서는 문법소의 핵심적인 뜻은 그 어원어의 어휘적인 뜻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Hopper & Traugott(1993)의 의미지속성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즉 실사에서 변한 허사는 실사때 가지고 있던 의미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서는 의미지속성(persistence)이라고 한다. 파생접사화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체적인 의미 약화란 접두사의 의미 추상화로 언어 화자들의 인지에 따른 것인데, 이때 작용하는 인지는 언어 화자들의 어기의 의미에 대한 강조이다.¹⁰⁾ 즉 (1)에 나타난 ‘너무’를 포함한 모든 의미들은 ‘강조’의 의미 영역 속에 포함되는데, 이는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어휘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에 의해 얻어진 것이다.¹¹⁾ 이처럼 접두사의 의미는 형태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기보다 어기와의 관계에 의해 추출된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¹²⁾

(1)의 동사파생 접두사가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데-’와 ‘설-’은 어기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의미적 특징을 보여준다.¹³⁾

(2) ‘데- : 설-’의 뜻과 파생어

‘데-’ :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함, 불완전하게, 불충분하게’ 데되다, 데삶다, 데생기다, 데알다, 데익다, … .

‘설-’ : ‘충분하지 못하게’ 설다루다, 설삶다, 설다듬이, 설늪다, 설익다, 설든다, 설깨다, 설마르다, 설보다, … .

10) Bybee & Pagliuca(1985: 59, 72)에서는 추상화를 향한 은유적 방향에 의해 어휘적 의미가 의미 내용의 일반화 혹은 약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이 글에서의 연구 대상어는 은유적 방향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11) 안중애(1983: 46)은 모든 접두사가 어기의 의미를 변화시킴으로써 본뜻에 환기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안효경(1994: 73)에서는 동사파생 접두사가 동사 어기의 강세와 한정 기능 가진다고 본다.

12) 오예옥(2002: 217)에서는 명사 접미사의 경우, 기저어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고 기저어와 결합함으로써만 비로소 해당 파생명사의 대표 의미, 즉 원형 의미를 규정하는 기능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접미사와 달리 접두사는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편, 어기와 결합함으로써 주변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고 본다.

13) (2)의 ‘데-’는, ‘몹시’, ‘매우’의 뜻을 가지고 ‘데거칠다, 데바쁘다’의 단어 형성에 쓰이는 ‘데-’와 동음이의어일 뿐이다. 후자의 ‘데-’는 뒤에 형용사파생 접두사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설-’은 ‘설다’의 어근이 접두사화 된 것인데 비해 ‘데-’의 어원은 알 수 없다. ‘설다’는 두 가지 형태로 접두사화 되었다. ‘설다’의 어근만 떨어져 나와 그대로 접두사화 된 것이 접두사 ‘설-’이고, 어근의 관형사형 형태가 접두사화 된 경우가 접두사 ‘선-’이다.¹⁴⁾ 명사를 파생하고 있는 ‘선-’과 달리 동사 파생에 참여하는 형태론적 특징을 보여주는 ‘설-’은 접두사화에서 형태 변화가 나타나지 않듯이 의미 또한 원의미와의 유연성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어휘적 의미 성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화되어 있다. 접두사 ‘데-’와의 의미 겹침은 ‘데삶다: 설삶다’, ‘데익다: 설익다’에서 나타난다.

‘설-’에는 아직 원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으나,¹⁵⁾ 접두사로서 의미 추상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접두사 ‘설-’은 그 의미가 원의미인 ‘익지(익히지) 않은’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 의미의 ‘모자람’을 뜻하는 추상성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 확대 의미와 ‘데-’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 의미로 인해 두 형태소 사이의 의미 겹침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동사파생 접두사 중 ‘빚-, 엇-, 헛-’ 역시 이들 사이에 유사 의미가 나타나며 동일 어기 대치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3) ‘빚- : 엇- : 헛-’의 뜻과 파생어

- ‘빚-’ : 1. ‘비뚤로, 기울어지게’ 빚나가다, 빚놓다, 빚뚫다, 빚맞다, 빚물다,
2. ‘비스듬하게’ 빚꺾다,

14) 김계곤(1996: 27)에서는 ‘선-’과 ‘설-’을 어근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들에 의한 결합어는 의미적 특이성에 의한 단어 형성이므로 ‘선-’과 ‘설-’을 파생접두사로 보기로 한다.

15) “단어만들기뒤붙이들은 그것이 비록 단어로부터 추상화되었다 하더라도, 또한 그 어원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변화를 입었다 하더라도 문법적인 토로 넘어가지 않는한 그것들은 자체에 원래의 어휘적 성격을 보유한다.”(럼종률 1980: 71)

3. ‘잘못’ 빗들다, 빗디디다, 빗맏다, 빗보다,
- ‘엇-’ : 1. ‘어긋난, 어긋나게 하는’ 엇각, 엇결, 엇길, 엇시치다,
2. ‘비뚜로, 어긋나게, 서로 겹쳐서, 서로 비켜서’ 엇걸리다, 엇잡다,
3. ‘조금’ 엇구수하다, 엇비슷하다,
4. ‘그럴듯하게’ 엇달래다,
5. ‘잘못’ 엇들다, 엇디디다, 엇맏다, 엇나가다,
- ‘헛-’ : 1. ‘잘못’ 헛드다, 헛디디다, 헛맏다, 헛보다, 헛잡다, ...
2. ‘되는 대로’, ‘마구’ 헛놓다, 헛갈리다,

‘빗-, 엇-, 헛-’은 예 (1)이나 (2)의 접두사들과 달리 다의적 특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접두사의 다의성은 원래 접두사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아니다. 여기와 결합하면서 생겨난 것이거나 형성된 파생어에 의해 변화된 의미가 대부분이다. 이들 확대 의미들 일부분에서 ‘빗-, 엇-, 헛-’은 동일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동일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동일 어기를 대상으로 한 파생어의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접두사는 동일 어기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 어기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도 그 파생어가 동일 의미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빗나가다’는 ‘바르게 가지 않고 옆으로 벗어나서 틀리게 가다’이나, ‘엇나가다’는 ‘비위가 틀리어 말이나 짓이 어기어서 나가다’ 혹은 ‘줄이나 금이 엇비뚜름하게 나가다’이다. 또 ‘엇잡다’와 ‘헛잡다’는 동일 어기로 하여 ‘엇-, ‘헛-’ 파생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자는 ‘어긋나게 서로 잡다’의 뜻이고, 후자는 ‘잘못 잡다’로 이들 뜻은 같지 않다.

그러나 ‘엇디디다’와 ‘빗디디다’와 ‘헛디디다’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또 ‘빗맏다’와 ‘헛맏다’도 동일 의미로 쓰이고 있는 한편, ‘엇맏다’는 이들을 잘못된 단어이지만 실제 이 단어도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¹⁶⁾ 이는 이들 개별 접두사들의 원의미간에는 비록 공통 의미 영역이 없었지만, 이들 접두사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다의적 성격을 띠

게 되어 의미적 유사성이 나타나게 결과이다. 접두사의 의미 확대로 인한 다의성은 구체적 의미의 약화를 뜻한다. 이는 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화자들이 ‘빋-’이나 ‘엇-’, 그리고 ‘헛-’의 원의미를 여기에 더했을 때, 어기의 의미가 가진 전형성에서 벗어남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들 접두사에 부정적 가치를 인지하게 된 결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 접두사를 같은 어기에 결합하게 되는 사례도 생겨나게 된 것이며, 또한 이들 접두사가 가진 부정적 가치의 추상적 의미를 ‘잘못’으로 선정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상은 파생동사를 중심으로 접두사의 확대 의미와 의미 유사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파생형용사 역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두사는 딱 드물다. 따라서 의미 유사성을 가진 접두사 역시 거의 없고, 단지 ‘검-, 드-, 데-, 휘-’들에서만 이런 의미 관련성을 조금 살펴볼 수 있다.

(4) ‘검- : 드- : 데- : 휘-’의 뜻과 파생어

‘검-’ : ‘몹시’, ‘지나치게’ 검쓰다, 검질기다, 검세다.

‘드-’ : ‘몹시’, ‘아주’, 드넓다, 드높다, 드바쁘다, 드세다.

‘데-’ : ‘몹시’, ‘매우’ 데거칠다, 데바쁘다.

‘휘-’ : ‘매우’ 휘넓다, 휘둥그렇다, 휘둥그레지다.

형용사 파생접두사들에서도 역시 동일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보이는데, (4)의 ‘몹시, 매우’가 그것이다. 뜻이 같다면 동일 어기 결합이 가능할 수 있는데, ‘검세다’와 ‘드세다’, ‘드바쁘다’와 ‘데바쁘

16) 접두사 ‘빋-’은 중세국어부터 사용된 부사 ‘빋’이 현대로 내려오면서 접두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엇-’과 ‘헛-’은 이미 중세국어부터 접두사로 쓰이고 있던 것이다. ‘빋’ : (부사) ㅁ마니 부는 브르맨 접 밋 느낏다(두시언해 초간 7:7) 單父의 거문과 빋 노햇도다(두시언해 초간 감 1:3b), 넙므를 가스매 빋 홀리노다(두시언해 중간 32). 엇 : 물 겨퇴 엇마ㅁ시니(용비어천가 44), 엇므르다(역어류해 상6). 헛 : 헛간(동문선 상 34), 헛부억(유씨물명고 5 火).

다', 그리고 '드넓다'와 '휘넓다'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드바쁘다'와 '데바쁘다'가 동일 의미로 쓰이는 반면, '검세다'와 '드세다'는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고, '힘이나, 기세, 성질' 등을 나타낼 때만 동일 의미로 쓰인다.¹⁷⁾ '드넓다'와 '휘넓다'도 같은 의미일 것 같지만 완전 의미 동일성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휘-'가 '드-'보다 더하는 의미의 폭이 좀더 크다. '휘넓은 평야'는 다소 어색하며 '드넓은 평야'가 의미 전달력이 더 명확하다. 따라서 '드-' 접두사만이 나머지 '검-, 데-, 휘-'와 의미 유사성을 가지며, 나머지 접두사들 사이에는 의미 유사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이는 접두사 '검-, 데-, 휘-'들에 사전이 동일 의미를 선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의미가 같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¹⁸⁾

실제 의미가 같지 않으면서 이러한 의미 유사성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 접두사가 가지고 있던 원의미와 달리 여기와 결합하면서 생겨난 의미 때문이다. '몹시'와 '매우' 등은 이들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는 추상성에서 비롯된 의미일 뿐이다. 이 역시 언어 화자들이 어기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어 기존에 있던 어휘들을 이용한 결과이다.¹⁹⁾ 언어에는 원의미가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의 영향으로 여기에 따라 각기 다른 접두형태소가 선택되었으나, 이들 접두사 모두가 어기의 '강조'라는 추상적 의미 영역 속에 포함되다 보니 동일 의미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다. 형용사는 대부분 상태나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더하

17) 기운이 드세다/검세다, 성질이 드세다/검세다, 시집살이가 드세다/*검세다, 팔자가 드세다/*검세다, 터가 검세다/*드세다.

18) 사전은 「우리말 큰사전」(1992)와 「표준국어대사전」(1999)를 말한다. 또한 이 글에서의 접두사나 단어 의미도 이 두 사전을 중심으로 하여 취합한 의미이다.

19) 전달하려는 추상적 개념은 인지언어학에서 말하는 목표물(target)이고, 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어휘 표현의 의미는 전달하려는 개념의 원천(source)이라 볼 수 있다(이효상 2000: 281 참조).

는 경우는 이들의 강조나 축소 외의 의미를 더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축소보다 강조의 의미를 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형용사 파생에 나타나는 접두사의 의미는 역시 구체적인 의미 부여보다는 ‘강조’라는 추상적 의미 부여가 나타나게 된다.

2.2 명사파생 접두사의 의미

명사파생 접두사는 그 종류도 많고 의미도 다양하다. 그리고 한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다의성을 띠는 경우도 많다. 이 절에서는 많은 종류의 명사파생 접두사 중 의미 유사성이 나타나는 형태소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2.1 ‘날-’과 ‘생-’

파생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접미사보다 접두사는 어기의 뜻을 더욱더 한정하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는데, ‘날-’과 ‘생-’ 역시 어기의 뜻을 한정하는 데 있어 서로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점은 첫째, 파생명사를 형성하는 접두사라는 기능적 공통 특징 외에, 둘째,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은 점에서 같다는 의미적 공통점, 셋째, 결합하는 어기가 같다는 결합 환경의 공통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이들의 큰 차이점은 ‘날-’은 순수 우리말이고, ‘생-’은 한자어라는 것이다.²⁰⁾

20) 김계곤(1996: 29)에서는 ‘날-것’에 한정하여 ‘날-’이 의미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며, 또한 ‘생(生)’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물론 한 단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날-’과 ‘생-’이 결합어로 사용될 때는 합성어의 뜻보다는 접두사로서의 기능적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날-’과 ‘생-’을 모두 접두사로 보기로 한다.

‘날-’과 ‘생-’ 형태소의 관련성을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날’과 ‘생(生)’이 동일 뜻으로 쓰이고 있는 한편, 이들 결합어도 나타나고 있다.²¹⁾ ‘날-’ 결합어는 ‘날고기, 날디새, 날젓’ 등이 나타난다.²²⁾ ‘생-’의 15-18세기 형태는 ‘싱-’으로 나타나는데, 그 결합어로 ‘싱김, 싱디황, 싱미, 싱면, 싱피명, 싱민, 싱비, 싱황어’ 등이 있다.²³⁾ 하지만 현대어에서 ‘날-’과 ‘생-’은 과연 동일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있다.

(5) ‘날- : 생-’의 뜻과 파생어

<‘날-’>

날1- : ‘익지 않은’, ‘익히지 않은’. 날감, 날감자, 날고구마, 날고기, 날굴, 날김치, 날콩, ... / 날반죽, 날제육, 날팔, ...

날2- : ‘삶거나 굽지 않은’ 혹은 ‘마르지 않은’, ‘말리지 않은’. 날고치, 날나무, 날아편/ 날장작, 날기와, 날고추, 날벼, 날보리, 날실, ...

날3- : ‘가공하지 않은’ 날가죽.

날4- : ‘지독한’, ‘악랄한’. 날강도, 날구역, 날도둑, 날도둑질, 날사기꾼, ...

날5- : ‘익숙하지 않은’ 날무지.

날6- : ‘뜻밖의’. 날벼락.²⁴⁾

21) ‘날’의 15-18세기 형태는 ‘날’인데, 문헌 자료에는 ‘느를 머그면 혜를 더으느니(生噉增惠)<능엄경 8:5>, 줄기와 느를(莖生者)<구급간이방 6:26>, 床에 올이니 半만 놀와 니그니 왜로소니(登床半生熟)<두시언해 초간 16:71>, 날고기(生肉)<역어류해 상 50>’ 등이 나타나 있다. ‘생’은 한자 ‘生’이지만, ‘싱과실도 만히 먹고(生果子)<두시언해 중간 15>’를 통해 보면 한글 ‘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2) ‘날디새’는 ‘날기와’를, ‘날젓’은 ‘생우유’를 뜻한다.

23) ‘날-’과 ‘생-’의 결합어 출전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날고기<구급간이방 1-23, 소학언해 2-41, 역어류해 상 50>, 날디새<훈몽자회 중18>, 날젓<우마상저염 역병치료방 4>’. ‘싱김(生絹)<가례언해 8-12>, 싱디황(生地黃)<유씨물명고 3장>, 싱미<가곡원류 131쪽>, 싱면(生면)<한중록 250쪽>, 싱피명<청구영언 109쪽>, 싱민(生民)<오륜가 2:35>, 싱비(生布)<구급간이방 6:85>, 싱황어(生黃魚)<삼강행실도 열3>’.

날7- : ‘맨 그대로의’. 날땀, 날뜨기, 날바늘, 날바닥, 날바탕, 날장판, 날종이.

날8- : ‘허탕’, ‘부질없는’. 날밤(夜), 날장구, … .

날9- : ‘상례나 장례를 다 치르지 않은’. 날상가, 날상제, 날송장.

날10- : ‘허랑한’, ‘주책없는’. 날바람둥이, 날탕.

<‘생-’>

생1- : ‘익지 않은’, ‘익히지 않은’. 생감, 생감자, 생고구마, 생고기, 생굴, 생김치, 생콩, … . / 생가루, 생간, 생숯, … .

생2- : ‘삶거나 굽지 않은’ 혹은 ‘마르지 아니한’, ‘말리지 아니한’. 생고치, 생나무, 생아편/ 생미역, 생실, 생장작, 생풀, … .

생3- : ‘가공하지 아니한’, ‘피륙 따위를 누이거나 다루지 아니한’. 생고무, 생고사, 생광목, 생모시, 생우유, …/ 생가죽.

생4- : ‘공연한’, ‘영똥한’. 생도둑, 생가슴, 생고생, 생사람, 생소리, 생트집, … .

생5- : ‘길들이지 아니한’, ‘낮익지 아니한’, ‘서투른’. 생낫, 생마, 생면목, 생문자, …/ 생무지.

생6- : ‘뜻밖의’. 생벼락.

생7- : ‘손대지 아니하거나, 본디 그대로인’, ‘다치지 아니한’의 뜻이나 ‘실제로 낳은’. 생과부1, 생구역질, 생논, 생눈, 생니, 생똥, 생머리, 생살, … .

생8- : ‘지독하거나 혹독한’. 생도둑, 생강짜, 생급살, 생땀, 생지옥, 생코, … .

생9- :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생가지, 생매장, 생목숨, 생사람, 생이별, … .

생10- : ‘까닭 없이 하는’, ‘억지스러운’. 생기침, 생난리, 생떼, 생야단, … .

생11- : ‘잘못하여 죽은’. 생걱정, 생귀신, 생죽음, 생초상, … .

- 24) 현재, 사전에는 ‘날벼락’의 뜻으로 ①맑은 날씨에 뜻밖에 떨어지는, 있을 수 없는 벼락. ②뜻밖의 경우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재난. ③아무런 잘못도 없이 뜻밖에 당하는 꾸지람이나 나무람이 모두 올려져 있다. ②, ③의 뜻은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던 것이 ‘날벼락’의 어휘적인 뜻으로 굳어진 것이다. ‘생벼락’은 「우리말 큰사전」(1992)에서는 ‘날벼락’의 ②, ③의 뜻과,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①, ②의 뜻과 비슷한 것으로 본다.

15-18세기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날-’ 형태소가 ‘생(生)’의 뜻으로 쓰였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동일 어기와 결합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어에서 ‘날-’과 ‘생-’은 다의성을 띠며, 동일 어기와 결합한 예가 많지만, 완전한 의미 일치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김덕신(1997: 62)에서는 ‘날-’의 의미가 ‘생-’과 동의성을 유지하려면 ‘날상가↔익은 상가’와 같은 반의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만으로 동의 관계의 성립 여부가 가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날상가’와 ‘익은 상가’의 관계는 ‘날-’이 가지고 있는 ‘익지 않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날-’이 가진 뜻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날-’과 ‘생-’의 뜻이 동일하면 동일 어기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날-’과 ‘생-’이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서로 대치하여 쓸 수 없다(김동찬 1987: 267). 동일 어기 결합 관계는 이들이 가진 뜻과 관련하여 한정적인 범위를 보여준다. 원의미가 같은 형태소인 ‘날-’과 ‘생-’의 의미 불일치는 이들 형태소가 각각 개별적인 의미 변화를 입었기 때문이다.

(5)의 ‘날-’과 ‘생-’ 접두사의 뜻 중 ‘날1-’, ‘생1-’은 언어 화자들이 이들 접두사에 대해 지각상 가장 현저한 뜻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학습되며, 이로 인한 파생어 형성 빈도수가 높다.²⁵⁾ ‘날2-’와 ‘생2-’는

25) 이에 대한 근거를 위해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결과, ‘날-’과 ‘생-’의 뜻을 묻는 질문에 ‘날-’은 대부분 ‘익지 않은’이란 답을 하였으며, ‘생-’은 ‘익지 않은>살아있는>새로운>있는 그대로>싱싱한’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중심뜻을 묻는 질문에 ‘날1->날2->날7->날3-’, ‘생1-, 생9-, 생7-, 생8-, 생2-’의 순서가 나타났고, 생각나는 형성 단어를 써 보라는 지시에 ‘날고기>날생선>날감자>날고추>날달걀>날음식>날강도’, ‘생고기>생김치>생라면>생과일>생고생>생사람>생트집’ 등의 분포를 보여주었

‘날1-’과 ‘생2-’의 뜻과 가장 가까운 뜻이며, 나머지 뜻들은 ‘날1-’이나 ‘생1-’의 뜻과는 점점 거리가 멀다. 따라서 ‘날1-’과 ‘생1-’의 뜻이 ‘날-’과 ‘생-’의 원형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에서 의미 확대가 일어난 예들이다. ‘날-’을 중심으로 보면 이 원형적 의미로 형성된 파생어 수가 가장 많으며, 이에서 퍼져나간 뜻으로 형성된 파생어는 ‘날3-~날10-’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많지 않다. 또한 ‘날1-’과 ‘생1-’의 원형적 의미와, 이와 가장 가까운 의미인 ‘날2-’와 ‘생2-’에서 동일한 어기를 대상으로 한 파생 빈도가 높다. 한편, 파생어의 뜻도 동일한 경우가 나타나지만, 멀리 확대되어 나간 의미들에서는 ‘날-’과 ‘생-’의 뜻이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으며,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의미들이 많다. 이는 동사나 형용사 파생접두사와 다르게 ‘날-’과 ‘생-’이 같은 의미에서 출발했으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둘 사이의 의미적 공통성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2.2.2 ‘알-’, ‘민-’ 그리고 ‘맨-’

접두사 ‘알-’과 ‘민-’ 그리고 ‘맨-’은 ‘날-’과 ‘생-’처럼 아주 밀접한 의미 관련성을 가진 형태소는 아니지만, 의미적 유사성이 있다. 원래 이들은 어원부터 다른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의미는 다르다. ‘알-’은 자립 명사인 ‘알’에서 왔으며, ‘민-’은 동사 ‘미다’에서, ‘맨-’은 관

다. 한편 이양혜(2002) 「한국어 파생명사 사전」을 참고하여 분류한 접두사 ‘날-’과 ‘생-’의 의미별 단어 파생 빈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접두사 ‘날-’과 ‘생-’의 파생명사 빈도수>

접두사	날1	날2	날3	날4	날5	날6	날7	날8	날9	날10	
빈도수	24	8	3	6	1	1	9	3	3	4	
접두사	생1	생2	생3	생4	생5	생6	생7	생8	생9	생10	생11
빈도수	31	10	22	8	9	1	26	9	18	21	4

이 표에서 보면 ‘날1-’과 ‘생1-’의 파생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형사에서 왔다.

‘알’은 ‘새의 알’이나 ‘곡식이냐 열매의 알’을 뜻한다.²⁶⁾ 이러한 자립 형태소였던 ‘알’이 의존 형태소인 접두사 ‘알-’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 의미로 확대되어 쓰임으로써 현대어에서는 많은 단어를 형성하게 되었다.²⁷⁾ 한편, 접두사 ‘민-’의 옛형태는 ‘뮌-’인데,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의 뜻을 가진 ‘뮌다’의 관형사형에서 온 것이다.²⁸⁾ 16·17세기 자료 ‘뮌머리, 뮌뽀, 뮌비단, 뮌산, 뮌소’ 등으로 미루어 보아,²⁹⁾ ‘민-’의 원의미는 ‘-이 없는’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어에서 ‘민-’은 이러한 뜻으로만 쓰이지 않고 다의어적 특성을 가지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소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뮌’은 관형사 ‘뮌’의 의미인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온통’ 혹은 ‘오로지’의 뜻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6) ‘알-’과 ‘민-’의 뜻과 파생어

<‘알-’>

알1- : ‘알처럼 둥근’. <사물> 알무, 알뿌리, 알사탕, 알약.

알2- : ‘작은’. <동물> 알개미. <사물> 알나리, 알뚝배기, 알바가지, 알요강, 알잔, 알장, 알지게, 알합, 알항아리.

알3- : ‘겉을 싼 것이나 다 벗겨 버렸거나 딸린 것이 다 떨어버린 것’. <곡식, 과일> 알감, 알꼭, 알꼭식, 알밤. <신체> 알궁둥이, 알대가리, 알머리, 알몸, 알몸뚱이, 알발, 알살, 알종아리,
<땅> 알땅, 알섬, 알자리, <기타> 알바늘, 알불,

알4- : ‘가장 요긴한 물건’ 또는 ‘가장 실속이 있거나 표본이 되는

26) ‘알’의 구체적 뜻풀이는 ‘동물의 새끼가 태어날, 껍데기로 싸여있는 타원형의 물질’과 ‘열매 곡식 따위의 낱개’이다.

27) 자립명사 ‘알’이 의존 형태소인 파생접두사 ‘알-’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되는 이유와 과정은 이양혜(2003: 221-225)를 참조하기 바람.

28) 현대어에서 ‘뮌다’는 ‘무이다’로 나타난다.

29) ‘뮌-’의 옛말 파생어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뮌머리(禿子:역어류해 상29), 뮌뽀(禿山:역어류해보 5), 뮌비단(박통사초간 상47, 노걸대연해 하62, 박통사중간 상43), 뮌산(荒山: 한청문감 27a), 뮌소(素餚 역어류해 상51)’

것'. <사람> 알거지, 알건달, 알깡쟁이, 알부자, 알부랑자.
<그 외> 알가난, 알돈, 알부피, 알심, 알잠, 알천, 알짜.

<‘민-’>

민1- : ‘꾸밈새나 덧붙여 딸린 것이 없음’. 민가락지, 민비녀, 민옥
잠, 민족두리, 민돛자리, 민저고리, 민낫, 민색떡, 민얼굴, 민
결상, 민누에,

민2- : ‘가지지 않거나 없음’. 민궁, 민꼬리닭, 민꽃, 민달팽이, 민무
늬, 민물, 민엿, 민음표, 민코, 민짜,

민3- : ‘바탕 그대로 드러난’. 민날, 민다래끼, 민대가리, 민머리,

민4- : ‘격식을 갖추지 않은’. 민화투.

<‘맨-’> : ‘다른 것이 없는’ 맨땅, 맨머리, 맨살, 맨몸, 맨발, 맨얼굴,

접두사 ‘알-’은 자립명사였던 ‘알’의 이미지에서 추출된 의미들이 떨어져 나와 여러 뜻으로 확대된 것인데, 이 여러 의미 중 (6)의 ‘알 3-’의 뜻이 접두사 ‘민-’이나 ‘맨-’의 뜻과 비슷하다. 이들 세 접두사가 동일 어기에 결합되는 경우는 ‘머리’를 어기로 하였을 때뿐인데, ‘알 머리’는 ‘맨머리’의 속된말인데 비해 ‘민머리’는 이들과 뜻이 다르다. 단어 ‘알머리’는 ‘아무 것도 쓰지 않은 머리’인데 비해, ‘민머리’는 ‘정수리까지 훨씬 벗어진 대머리’를 뜻한다. 따라서 (6)의 세 접두사가 동일 어기와 결합하는 예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임지룡·윤희수(1993: 60-62)과 Taylor(1980: 51-54)를 중심으로 인지언어학에서 원형을 구성하는 특성을 살펴보면 지각상 현저한 쪽,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빈도성이 높은 것, 먼저 학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의 원형 의미는 ‘동물의 알’과 ‘곡식의 알’ 둘 다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확대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민-’은 ‘의다’의 관형사형이 접두사화한 것이기 때문에 원의미는 ‘~이 빠진’이라 할 수 있지만, 접두사로서 ‘민1-민4’ 중 어느 것도 원형의 미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알-과 ‘민-’은 의미 일치성이

없어 의미상의 동일 어기 결합이 나타나지 않지만, (6)을 통해보면 의미 유사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알-’과 ‘맨-’에서는 동일 어기 결합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들 세 접두사의 의미 관련성은 ‘알-’의 확대 의미인 ‘알3-’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민-’과 ‘맨-’ 사이에서 동일 어기 대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알3-’은 ‘민-’과, 한편으로 ‘맨-’과도 동일 어기 대치 결합이 가능하다. ‘알3-’이 ‘민-’과 동일한 어기를 대상으로 파생어를 형성하는 경우는 ‘머리, 대가리’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 동일 어기에 의해 형성된 단어의 뜻은 같지 않다. 이에 비해 (6)에서 보여 주듯이, ‘알3-’은 ‘맨-’과 동일 어기에 대치되어 파생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미도 거의 같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맨-’의 의미에는 의미 확대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민-’이나 ‘알-’에 의미 확대가 일어남으로써 의미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알-’에는 의미 확대의 폭이 큰데, 이에 따라 ‘맨-’과의 의미 겹침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2.2.3 ‘강-’과 ‘건-’

한자어로서 ‘강’은 주로 ‘굳셀 강(強)’이 쓰이고, 동일 독음으로 ‘강(鋼)’과 ‘강(剛)’이 역시 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접두사 ‘강-’에서 이러한 한자어 ‘강’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자어 중에는 오랜 세월에 의해 외래어였다는 의식이 점차 사라져 우리말로 자리잡은 것이 있지만, 접두사 ‘강-’이 한자어 ‘강’에서 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³⁰⁾ ‘건-’ 역시 한자어에서 온 듯 하지만 확실

30) 접두사 ‘강-’은 ‘붓’이나 ‘담배’, ‘구두’처럼 외래어였다가 이제 외래어라는 인식조차 없어진 귀화어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다. 정동환(1993: 160)에서는 ‘강-’이 토박이말에 자주 붙어 쓰임으로써 본래의 뜻이 약

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한자어 ‘강’이나 ‘건’을 배제하고, 현대어 접두사 ‘강-’과 ‘건-’에 한정하여 의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7) ‘강-’과 ‘건-’의 뜻과 파생어

<‘강-’>

강1- : ‘몹시 심한’ 강더위, 강서리, 강추위, … .

강2- : ‘진하다’ 강된장, 강똥, 강보리밥, … .

강3- : ‘오직 그것만으로 된’ 강밥, 강보리밥, 강소주, 강술, 강엿, … .

강4- : ‘억지스럽다’ 강기침, 강울음, 강떼, … .

강5- : ‘부자연스러움’ 강주정, 강병.

강6- : ‘억지로 하다’ 강모.

<‘건-’>

건1- : ‘마른’ 또는 ‘말린’ 건가자미, 건과자, 건바다, 건어물, 건포도.

건2- : 행동을 나타내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겉으로만’ 건울음, 건주정.

건3- : ‘근거나 이유 없는’ 건강짜, 건강짱이, 건살포, 건기침, 건병, 건모, … .

‘강-’의 원형 의미는 ‘강1-’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미변화가 나타나 (7)처럼 많은 주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³¹⁾ 이에 비해 ‘건-’은 그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건-’의 원형 의미는 ‘마른’ 또는 ‘말린’인데, 다음 (7)에서 보듯이 변화된 의미가 단어 형성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강-’과 ‘건-’은 서로 원형 의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 어근을 어기로 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7)에서

화되고 독립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접두사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들 수 없어 이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다.

31) 정동환(1984: 50, 1993: 194)에서는 접두사들의 주변 의미의 개수를 밝히고 있으나, 주변 의미의 개수는 의미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연구자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보면, ‘기침, 울음, 병, 모’ 등을 어기로 하여 ‘강-’과 ‘건-’의 대치 결합이 가능하다. 이 중 ‘강모’와 ‘건모’가 의미적 차이가 좀 있을 뿐 나머지는 의미 차이가 없다.

‘강-’과 ‘건-’이 원형 의미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어 중에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다는 것은 앞서 논의된 ‘날-’, ‘생-’과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날-’과 ‘생-’은 원의미가 같음으로 말미암아 두 형태소가 대치되어 사용될 수 있었지만 의미 확대로 인하여 동일 어기 대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게도 되었다. 하지만 ‘강-’과 ‘건-’은 원형 의미에서 동일 어기를 중심으로 한 파생어의 동일 의미나 유사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확대 의미로 말미암아 동일 어기에 의한 파생어들에서 의미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과 ‘건-’이 원래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없던 형태소들이었지만 의미가 확대됨으로써 공통 의미 영역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상의 명사파생 접두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의미 확대와 의미 유사성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날-, 생-’에서는 의미 확대로 말미암아 두 접두사 사이의 의미 유사성이 희박해져 가는 데 비해, ‘알-, 민-, 맨-’과 ‘강-, 건-’에서는 의미 확대로 인해 공통 의미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3. 접두사 사이의 공통 의미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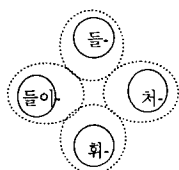
접두사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그 다양함이 적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파생접미사보다 크다. 2장에서는 파생어의 품사별로 파생접두사의 의미 다양성, 그리고 이로 인한 동일 의미 생성, 동일 의미의 희박성, 또 동일 어기 대치성 등을 통해 접두사의 의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접두사들의 원의미나 원형 의미 간의 의미 일치성과 유사성 뿐 아니라, 의미 확대에 의한 의미망의 얹힘에 그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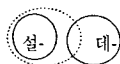
고전주의적 핵의미 관점은 aA, aB, aC, aD 이지만, 인지주의적 관점은 ABC, BCD, CDC, DEF와 같은 의미 연쇄를 이룬다(임지룡 1993: 60, 1996: 244). 이 글의 접두 형태소들의 의미가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는 요인 역시 형태소들의 의미 확대에 의한 것이다. 즉 한 형태소의 의미가 확대되면 공통 분모격인 BC와 같은 의미 겹침이 점점 벌어지다가 마침내 의미 F는 A와 거리가 먼 뜻이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 다룬 접두 형태소의 의미 변화에 의한 의미 겹침, 또는 의미 유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8) 의미 확대에 따른 개별 접두사의 의미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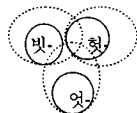
ㄱ. ‘들-, 들어-, 처-,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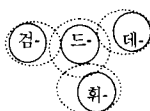
ㄴ. ‘데-,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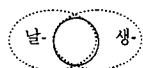
ㄷ. ‘빚-, 엮-, 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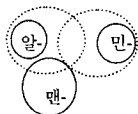
ㄹ. ‘검-, 드-, 데-, 휘-’



ㅁ. ‘날-, 생-’



ㅂ. ‘알-, 만-, 맨-’



ㅅ. ‘강-, 전-’



(8)의 실선 영역은 각 접두사의 원의미 또는 원형 의미를 뜻하고, 점선 영역은 확대 의미를 뜻한다. (8ㄱ-ㄷ)은 동사파생, (8ㄹ)은 형용사파생, (8ㅁ-ㅅ)은 명사파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8ㄱ)은 ‘들-, 들이-, 치-, 휘-’ 접두사들 사이에는 의미 겹침은 아직은 없고, 단지 그 의미 영역이 근접함으로써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 의미로 ‘마구’가 나타나는 것은 확대된 의미로 인한 추상적 의미가 개념 의미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³²⁾

(8ㄴ)에서 ‘데-, 설-’은 동일 어기를 대상으로 한 대치 결합이 가능한데, (8ㄴ)은 ‘설-’의 확대 의미가 ‘데-’의 추상적 의미와 겹쳐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8ㄷ)은 ‘빋-’과 ‘엇-’의 의미 확대로 인하여 ‘헛-’의 원의미와 의미 겹침이 나타남을 말한다. ‘빋-, 엇-, 헛-’은 거의 동일 어기에 대치되어 쓰이는 일이 없지만, ‘엇디디다: 빋디디다: 헛디디다’처럼 대치가 가능한 이유는 ‘빋-’과 ‘엇-’의 의미 확대로 인한 추상적 의미 영역이 ‘헛-’의 원의미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8ㄹ)은 ‘드-’만이 ‘검-, 데-, 휘-’와의 공통 의미 영역이 나타날 뿐이고, ‘검-, 데-, 휘-’ 사이에는 의미 겹침이 없음을 말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들 의미에 ‘몹시’나 ‘매우’의 공통 의미 영역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접두사들의 의미 추상화로 인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왜

32) 왜냐하면 특정 상황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의 의미 내용을 합성화하는 것도 개념화 과정이기 때문인데, 이는 사람의 인지 영역 선택과 관련된다(Langacker, 1987: 117).

나하면 ‘휘-’외에는 이들 접두사가 가지고 있는 원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앞서 2장의 (4)에 제시된 의미가 이들 접두사가 가진 구체적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8口)의 ‘날-’과 ‘생-’은 확대 의미에서 완전 의미 일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날-’과 ‘생-’이 같은 의미에서 출발했으나 각 형태소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의미의 폭이 넓어져 동일하지 않은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8ㅂ)은 ‘알-’과 ‘민-’ 사이에 의미 유사성이 나타나는 한편, ‘알-’에만 한정하여 ‘맨-’의 원의미와 의미 겹침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알-’의 의미 확대로 인하여 ‘맨-’의 원의미와 의미 겹침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고, ‘민-’의 의미 확대로 인해, 전혀 상관없던 형태소끼리도 의미 겹침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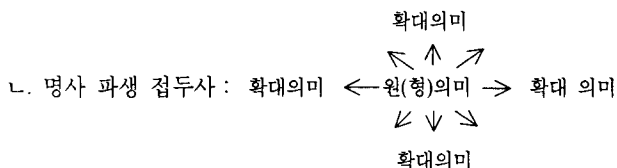
(8ㅅ)은 ‘강-’과 ‘건-’의 의미가 확대됨에 따라 의미 겹침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강-, 건-’은 원의미에 유사성이 없던 형태소이나 각각의 의미 확대로 말미암아 의미 겹침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동일 어기를 대상으로 한 동일 의미의 파생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상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 파생 접두사의 의미 영역은 원의미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통괄적으로 이들 접두사의 의미 확대 특징은 구체적인 의미의 약화, 내지 희석화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에 의해 접두사 사이에 의미 겹침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의미 확대에 있어 방향성은 명사파생 접두사의 그것이 면적 확대 방향인 데 비해, 동사나 형용사의 그것은 선적 확대 방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9) 파생접두사의 의미 확대 방향

ㄱ. 동사, 형용사 파생 접두사 : 원(형)의미 —————> 확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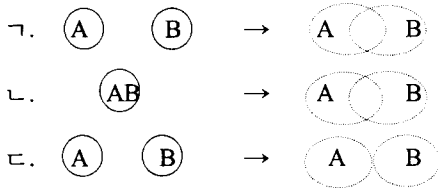


(9)와 같은 방향성으로 인해 명사파생 접두사의 의미는 동사파생 접두사나 형용사파생 접두사의 의미보다 좀더 구체적 의미를 띤다. 역으로 표현하면 동사, 형용사 파생 접두사의 의미가 명사파생 접두사의 그것보다 더 추상화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차이성은 적지만 형용사파생 접두사가 동사파생 접두사에 비해 좀더 추상적 의미를 띠고 있다.

앞의 (8)이 결론적으로 뜻하는 바는 접두사의 의미 변화로 인하여 의미 일치가 느슨해지거나,³³⁾ 또는 의미 겹침이 나타나게 되거나, 유사성의 접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의미 확대 유형은 동사파생 접두사나 형용사파생 접두사, 명사파생 접두사 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8)을 토대로 의미 변화로 인한 파생접두사 사이의 의미 유사성이나 근접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3) 이것은 문법화(grammaticalization)에서 말하는 의미가 희박하게 되고 상실되기에 이르는 의미 표백화(semantic bleaching)와 정확하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河上誓作(1996, 이기우 외 옮김(1997: 254))의 제시처럼 본래의 의미가 희박해져 가는 것도 여기에 속한다면 비슷한 뜻이라고도 볼 수 있다.

(10) 파생접두사의 의미 변화에 의한 의미 관련성 유형



첫째, 서로 관련성이 없던 접두 형태소의 의미가 확대됨으로써 공통 의미 영역이 생겨나기도 한다(10ㄱ). ‘데-’와 ‘설-’, ‘빚-’과 ‘엇-’과 ‘헛-’, ‘검-’과 ‘드-’와 ‘데-’와 ‘휘-’, ‘강-’과 ‘건-’의 의미 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알-, 민-, 맨-’의 관계에서는 ‘알-’과 ‘민-’, 그리고 ‘알-’과 ‘맨-’의 의미 관계만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의미 영역이 동일했던 접두 형태소가 각각 의미 확대에 의해 공통 의미 영역이 퇴색화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10ㄴ). 이에 속하는 예는 드문데, ‘날-’과 ‘생-’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공통 의미 영역이 없던 접두 형태소가 각각의 의미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서로 의미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다(10ㄷ). 만일 이러한 관계에 있는 접두 형태소의 의미 확대가 더 커지면 (10ㄱ)처럼 공통 의미 영역이 생겨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들-’과 ‘들이-’와 ‘처-’와 ‘휘-’의 의미 관계가 이에 해당되며, ‘맨-’과 ‘민-’ 사이의 의미 관계도 이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 표현해야 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개념을 통해 표현하려는 인간의 인지적 활동 때문이다.

4. 마무리

접두사 역시 의미를 가진 언어 요소이기 때문에 의미 변화가 나타난다. 파생접두사는 그 의미 변화 중 의미 확대로 인해 다른 형태소와의 의미 겹침 혹은 의미 유사성이 나타나거나, 혹은 의미 일치가 있었던 형태소의 의미 겹침의 희석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이로 인해 의미 관련성을 가진 형태소끼리 대치 가능성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대치 가능하던 형태소끼리의 완전 대치성이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특징은 형용사보다는 동사, 동사보다는 명사파생 접두사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파생접두사의 종류가 명사, 동사, 형용사 순으로 많기 때문이며, 품사별로 구별되는 의미 확대 유형은 없다. 단지 동사나 형용사는 행위나 상태, 모양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의미 보탬이 ‘강조’나 ‘약화’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접두사의 의미 확대 방향이 의미 추상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나, 언어 화자들이 실재하는 구체적 의미를 가진 기존 어휘, 즉 ‘마구, 몹시, 매우’ 등을 추상적 의미 부여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명사파생에서는 접두사의 의미 확대가 일어나더라도 동사나 형용사 파생접두사보다는 더 구체적 의미를 띠고 있다는 점이 동사나 형용사와 다르다. 사물이나 대상에 보태어지는 의미는 동사나 형용사에서처럼 추상성만을 떨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 명사파생 접두사의 이전이 실사였던 이유도 있다.

참고문헌

- 고영진. 1997. 「한국어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국어국립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오희. 1999. “국어 접두사 연구 -원형 범주적 접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계곤. 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 김규선. 1971. “국어의 접두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3. 경복대학교 사범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 김덕신. 1997. “국어 고유어 접두사의 발달 과정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찬. 1987. 「조선어리론문법-단어조성론」.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북한어학자료총서 314, 탑출판사.)
- 김순임. 1987. “국어 접두사의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박이정.
- 김종도. 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 렴종률. 1980. 「조선어문법사」.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해외우리어문학연구총서 65. 한국문화사. 1995.)
- 서병국. 1975. “현대국어의 어구성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종애. 1983.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효경. 1994.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예옥. 2004. 「형식의미론과 인지의미론에서 본 어휘의미론」. 역락.
- 옥익환. 1984. “국어 접두사 연구 -고유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창돈. 1975. 「어휘사 연구」. 삼문사.
- 이건환. 1998. “의미 확장에 있어서 도식의 역할.”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언어학회. 81-99.
- 이양혜. 2002. 「한국어 파생명사 사전」. 국학자료원.
- 이양혜. 2003. “한국어 파생접사에 나타난 인지의미와 기능변화 연구.” 「담화와 인지」 10-3, 담화·인지 언어학회. 209-228.
- 이효상. 2000. “문법화 이론의 이해.” 「인지언어학(이기동 편저)」. 한국문화사. 255-298.
- 임지룡. 1993. “원형이론과 의미의 범주화.” 「국어학」 23. 41-68.

- 임지룡. 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한국언어학회. 229-260.
- 정동환. 1984. “현대 국어의 접두사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동환. 1993. 「국어 복합어의 의미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한글학회. 1992.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 이기우 · 이정애 · 박미엽 옮김. 1997. 「인지 언어학의 기초」. 한국문화사.
(河上誓作. 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研究出版社.)
- 임지룡 · 윤희수 옮김. 1993. 「심리언어학: 머릿속 어휘사전의 신비를 찾아서」. 경북대학교 출판부. (Aitchison, J. 1987.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Oxford: Basil Blackwell.)
- Bybee, J.L. & William, P. 1985. “Cross linguistic comparison and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eaning.” In Fisiak. 59-83.
- Taylor, J.R. 1980. Lexical structures and conceptual structures. In Pustejovsky, J.(ed.), *Semantics and the lexicon*. Dordrecht/ Boston/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223-262.
- Givón, T. 1973.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Vol. 2. Amsterdam: Benjamin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pper, P.J. & Traugott, E.C.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 Press.

이양혜(Lee Yang-hye)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08-738 부산시 남구 우암동 산55-1
전화 : (051) 640-3582. 017-509-1966
전자우편 : lyahye@pufs.ac.kr

원고접수일 : 2004. 5. 15.

게재결정일 : 2004. 10. 30.